요소수 대란에 중고차 변화… 디젤 '외면', 친환경차 '인기'

중고 디젤차 거래량 19% '뚝'
이번달 평균 시세도 떨어져
인기 SUV 디젤모델도 타격
전기차 거래량은 150% '쑥'

기아 더 뉴 쏘렌토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로 초래된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로 중고차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디젤 중고차 시세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온라인을 통해 전국 100여개 중점유통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량을 전면 공개하고, 요소수 생산 업체의 생산량도 늘어나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불안감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비대면 내차팔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AJ셀카에 따르면 11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월대비 중고 디젤차 전체 거래량은 19% 감소, 전체 평균 시세는 2% 소폭 하락했다. 산업 전반에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차 인기와 동시에 요소수 부족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고차 시장의 대표 세단인 '그랜저IG'와 '아반떼 AD' 디젤 모델은 전월대비 시세가 각각 8%, 2% 감소했다. 인기 SUV 디젤 모델 중 '더 뉴 쏘렌토' 11%, '싼타페 TM' 8%, '올 뉴 투싼' 10%로 하락세를 보이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SUV도 요소수 대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3분기까지의 전기차 신차 누적 판매량은 7만1006대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하며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중고차 시장에서도 차츰 디젤 차량보다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거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전월대비 전체 전기차 평균 시세는 14% 상승했고, 거래량도 150% 늘어났다. 특히, 국산 대표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평균 시세는 전월 대비 7% 상승하며 중고차 시장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기차의 높은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소비자 중심으로 내연기관의 효율성을 개선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선호되고 있다. 특히 중고 LF쏘나타 하이브리드와 니로 하이브리드,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시세가 전월대비 각각 0.49%, 4%, 13% 상승했다. 그랜저IG는 디젤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세 증감률이 대조를 이룬 것이 눈에 띈다.

안인성 AJ셀카 온라인사업본부장은 "국내 산업계가 요소수 대란과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까지 겪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 시장에서도 디젤차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AJ셀카를 통해 올바른 중고차 시세 파악과 허위매물, 미끼견적 없이 간편하게 중고차 거래를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왼쪽부터) 서울대 김지훈 교수, 고려대 안지훈 교수, 포스텍 이장식 교수, 카이스트 황성주 교수, 서울대 박정원 교수. /삼성전자

삼성이 육성하는 미래기술 성과 공유
기초과학·ICT 등 연구자 495명 참가

오늘 '2021 애뉴얼 포럼 개최'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이 연구자들 간 교유의 장을 마련했다.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과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는 22일부터 26일까지 '2021 애뉴얼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연구 지원 과제 중 1년 이상 진행한 연구책임자들이 모여 연구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에는 각 연구 대표 495명이 참가해 69개 과제에 대해 교류했다. 기초 과학 171명, 소재 연구 186명, ICT 연구 128명 등이다. 심사위원과 자문의원, 초청연구진 등도 참석했다.

참가 연구진은 ▲수리과학·물리학·화학·생명과학 등 기초과학 연구 분야 20개 과제 171명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에너지환경·배터리 등 소재 연구 분야 30개 과제 186명 ▲통신 모바일컴퓨팅·컴퓨터비전·로봇·광학·헬스케어 등 ICT 연구 분야 19개 과제 128명이다.

물리학 분야 발표자인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김지훈 교수는 은하 내의 구성요소들인 별, 가스, 블랙홀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중스케일 계산으로 모형화하고, 이를 통해 초거대 블랙홀들이 어떻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 내용을 소개한다.

생명과학 분야 발표자인 고려대 생명과학부 안지훈 교수는 식물의 개화 유도 호르몬인 '플로리겐'이 온도 변화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고 이동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9월 세계적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게재된 연구 결과와 함께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 발표자인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이장식 교수는 'V낸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전체와 채널층 소재를 차세대 소재로 대체할 수 있는 저온 공정기술과 소자 구현 공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실제 반도체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 해결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 토의한다.

컴퓨터비전 분야 발표자인 카이스트 AI대학원 황성주 교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상현실(AR)응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인간 학습에 기반한 대규모 시각 인식 시스템'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애뉴얼 포럼은 미래기술육성사업 성과를 극대화하는 주요 연중 행사다. 애뉴얼 포럼을 통해 서울대 이동환 교수와 경북대 최철호 교수가 만나 공동 연구를 시작하며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지에 논문을 개제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2013년 1조5000억원을 출연해 지금까지 706건 연구 과제에 9237억원 연구비를 지원한 바 있다.

국제 학술지에 2550건 논문 게재와 최상위 국제학술지에 420건 소개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김재웅 기자 juk@

유류세 인하 효과… 전국 주유소 가격 하락

휘발유 평균 가격 9주 만에 하락
유류세 내년 4월까지 한시적 인하

서울시내의 주유소 /뉴시스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2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요동치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방안을 내놓으면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9주 만에 하락했다. 또 급등했던 국제 유가도 하락세를 이으면서 주유 소비자들의 부담은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90.4원 내린 L(리터)당 1716.6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 지난주보다 67.0원 하락한 리터당 1535.6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최고가 지역인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120원 내린 리터당 1765.4원을 기록했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 가격은 리터당 1680.9원으로 107.3원 하락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33.2원으로 가장 비쌌다. 반면 알뜰주요소는 리터당 1645.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주간 기준 휘발유 가격은 8월 셋째 주부터 5주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9월 넷째 주 이후부터는 11월 둘째 주까지 8주 연속 올랐다. 셋째 주부터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본격 반영되면서 9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 내렸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은 유류세 인하 시행일부터 세금 인하분을 즉각 반영했다. 전국 알뜰주유소도 유류세 즉각 인하에 동참했다.

주간 기준 가격은 당분간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직영과 알뜰주유소를 제외한 자영 주유소들 모두가 유류세 인하를 아직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석유 제품이 주유소로 유통되는데 통상 2주 정도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유류세는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순간 붙기 때문에 2주간의 시차가 존재한다. 휘발유 가격은 개별 주유소에서 결정하는데 이들은 유류세가 인하되기 전 재고분을 다 팔아야 가격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소한 다음주까지는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단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한편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 1.7달러 떨어진 배럴당 80.6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번주 국제유가는 미국 달러화 강세와 IEA 공급 전망 상향, 코로나19 재확산, 미중 전략비축유 방출 논의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넷플릭스 '지옥', 공개 첫 날 전세계 1위

'오징어게임' 이후 처음

연상호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유아인이 주연을 맡은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지옥'이 공개 첫 날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 1위에 올랐다. 올해 국내 넷플릭스 드라마가 세계 차트 정상에 오른 건 '오징어 게임' 이후 처음이다.

OTT 등 순위를 집계하는 미국 플릭스패트롤닷컴(flixpatrol.com)에 따르면, '지옥'은 20일(현지 시각)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1위에 올랐다. 전날까지 1위는 '오징어 게임'이었다.

'지옥'은 국내를 비롯해 바하마·바레인·벨기에·홍콩·인도네시아·자메이카·쿠웨이트·말레이시아·멕시코·모로코·나이지리아·필리핀·폴란드·카타르·루마니아·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남아공·태국·베트남 등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지옥'은 연 감독과 최규석 작가가 2019년 내놓은 동명 웹툰이 원작인 6부작 드라마다. 미지의 존재가 어느 날 나타나 사람들에게 죽음을 예고하고, 그 예언이 실현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채윤정 기자 echo@